/ 루이스 빅스 영국 리버풀비엔날레 총감독 인터뷰 /

"광주·리버풀 비엔날레 교류하자"

"한국 정부와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비전은 환상적이다.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상호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개인에 대한 존중과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 어우러져 세계인들에게 긍정적 희망을 가르치고 전하는 문화적 프로젝트로 완성되길 기원한다."

지난달 31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최 '2008 아시아문화포럼'에 참가한 루이스 빅스 리버풀비엔날레 총감독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비엔날레와의 교류를 제안하고 문화도시와 미술계 흐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리버풀비엔날레는 영국 리버풀이 유네스코 지정 2008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리버풀의 대표적 문화콘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빅스 감독은 2000년 창설 초기부터 비엔날레를 이끌고 있다.

아시아문화포럼 참가 광주 방문
예술가·큐레이터 인적교류 필요
광주 문화도시 프로젝트 환상적

"광주와 리버풀 비엔날레의 교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즉각적으로 가능한 것은 예술가와 큐레이터 등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다.. 장·단기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까지 연결이 된다면 관객과의 교류까지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빅스 감독은 리버풀비엔날레가 도시 재생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굳이 계량화하자면 경제 혜택을 들 수 있겠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투자 금액의 7배 정도를 벌어들인다. 또 리버풀에 음악·연극 등 다양한 페스티벌이 많은데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시각 축제인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리버풀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는 데 역할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문화콘텐츠가 지역민들의 가슴과 머리를 움직이고, 그 의지로 도시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이야기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도시 이미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빅스 감독은 여타 도시처럼 리버풀 역시 문화 생태환경의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리버풀은 예술 교육 기관이 훌륭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는데, 꽉 막힌 학교 당국 대신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며 대화를 시도해 돌파구를 찾았다. 지금은 대학과 예술기관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단점들도 많고 그걸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빅스 감독은 10여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스타 큐레이터'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언제부턴가 작가나 작품 대신 전시회를 기획한 '큐레이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에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뉴스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뉴스를 전하는 '매체'에만 관심을 갖는 격이다. 이건 말이 안된다. 전시 기획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빅스 감독은 리버풀 비엔날레는 주최측이나 큐레이터들이 철저히 작가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고 작가들의 '제안'에 의해 전시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이번 비엔날레에 참가한 한국 작가 5명 역시 그같은 과정을 통해 전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런던대에서 근대사·미술사 등을 전공한 빅스 감독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테이트 리버풀 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왕립미술학회 특별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KBC 동부방송 갤러리 오픈

오늘 개관 기념 '남도미술의 현재전'

광주방송(KBC)이 동부방송본부 사옥에 고품격 갤러리〈사진〉를 오픈했다. KBC는 최근 여수시 동부방송본부 사옥 1층에 갤러리(230㎡)를 마련하고, 3~12월14일 까기 개관 기념전을 갖는다.

KBC 동부방송 갤러리는 산뜻한 전시 벽면과 첨단 조명시설을 갖춘 종합 전시공간이다. 이곳은 시민들을 위해 건물 바깥쪽에서도 실내의 일부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꾸며졌다.

KBC 동부방송 갤러리는 향후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와 함께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이나 그룹전, 기획 초대전 등을 열 예정이다.

또 다양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사랑방'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마땅한 전시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 작가들의 작품 발표 공간이 마련되게 됐다.

KBC 동부방송 갤러리는 3일 오후 개관 기념식과 함께 첫 개관기념 기획전으로 1부 '남도미술의 현재전'을 개막한다. 이어 24일부터는 2부 '현대미술의 흐름'전을 갖는다.

이번 개관 기념전에는 강종열·김용근·변정욱·유상국·이민하·이정자·이존립·정창익·정재종씨 등 모두 50여명의 작가들이 서양화와 한국화, 도예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1-691-311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대만 출신 2명 국제교류작가展

첸춘밍 작 '길에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대만 출신 작가들이 오는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국제교류작가'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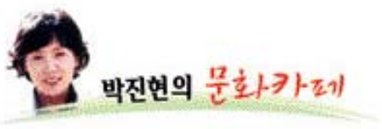
시립미술관은 대만국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인 '대북국제예술촌'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맺고, 양국의 작가 2명을 교환 입주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첸춘밍, 샘 수 등 2명의 작가가 시립미술관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작업을 해 왔고, 이번 전시는 그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이다.

첸춘밍과 샘 수는 각각 '길에서' '작음삶'을 주제로 광주의 정서가 가미된 신작을 선보인다.

대만 타이페이사범대학 조교수인 첸춘밍은 전시장 조명을 희미하게 한 뒤 영상작품과 시소를 설치, 관람객들이 시소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했다. 또 타이페이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설치작가 샘 수는 우주의 모습을 담은 컴퓨터그래픽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교류작가로 선정돼 '대북국제예술촌'에 머물고 있는 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진시영, 공태연씨가 대만 현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윤복·베토벤 효과

근래 문화예술계는 신윤복과 베토벤이 평정(?)했다. 서점가에는 조선 천재화가 신윤복을 소재로 한 소설 '바람의 화원'이 40만 부 이상 팔렸으며 신윤복 그림을 전시한 미술관은 '구름관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음악의 악성'인 베토벤의 인기는 신윤복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평소 클래식과 담을 쌓고 살아온 문외한들조차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나 합창 교향곡을 가까이하기 시작했다. 베토벤을 소재로 한 영화 '카핑 베토벤'(2007년)과 '불멸의 연인'(1995년)도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의 중심에는 두 편의 드라마가 있다. SBS 수목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역시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는 MBC '베토벤 바이러스'다. 베토벤 바이러스가 클래식을 내세운 음악 드라마라면 '바람의 화원'은 동양화를 브라운관에 옮긴 그림 드라마다. 시청률에서는 베토벤이 수목극 1위로 신윤복을 따돌리고 있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오합지졸의 오케스트라가 최고 실력의 마에스트로 강건우의 지도로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드라마 사이사이에 베토벤에서부터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바하 등 거장들의 음악이 삽입돼 극적 효과를 배가시킨다.

드라마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드라마 삽입곡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매된 이 드라마의 컴필레이션 음반 '베토벤 바이러스-더 클래식스 Vol. 1'은 최근까지 2만5천 장이 팔려나갔다. 클래식 음반업계에서 1만 장은 밀리언셀러나 다름없는 대박이다.

신윤복의 인기는 가히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바람의 화원'은 원작인 이정명씨의 동명 소설에서 '신윤복이 남장 여자'라는 설정을 그대로 가져와 대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지난달 12~26일까지 신윤복, 김홍도, 김정희 등의 조선시대 서화를 전시한 서울 간송미술관은 개관 이후 최대의 관람객(20만 명)이 다녀가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그의 미인도는 겹겹이 에워싼 관람객들로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난 2006년 '베토벤 바이러스'와 유사한 컨셉의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는 방송 2개월 동안 클래식 열풍을 일으키는 등 숱한 화제를 뿌렸다. 하지만 '노다메 칸타빌레'의 힘은 드라마 종영 후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너도 나도 클래식 공연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노다메 칸타빌레'의 감동을 잊지 못한 시청자들이 (비록 드라마는 끝났지만) 클래식 관객으로 변신하는 '노다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올 가을 전국의 안방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베토벤· 신윤복 바이러스'가 한국판 '노다메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박물관이나 공연장에서 느끼는 '문화현장'의 생생한 감동은 드라마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2008 아시아공연예술제' 추진위 구성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에서 열릴 '2008 아시아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공연예술제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가 무산된 제 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공연예술제 추진위가 진행을 맡게 된다.

지난달 31일 열린 추진위원회에서는 최규철 광주예총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정혜경(광주무용협회장), 임관표(광주음악협회장)씨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 외 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규상(광주연극협회장) ▲이대휴(국악협회장) ▲유방희(연예협회장) ▲조일성(영화협회장) ▲강숙자(전남대 교수) ▲김미숙(조선대 교수) ▲오성완(광주연극협회 부회장) ▲유광종(광주시 문화예술과장) ▲위성운(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